

콩고민주공화국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9. 11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2,345천 km ²	G D P	115억 달러(2008년)
인구	64.7백만 명(2008년)	1 인 당 G D P	178 달러(2008년)
정치체제	공화제(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Congolese Franc (FC)
대외정책	친서방, 비동맹외교	환율(달러당)	559.3(2008년 평균)

- 아프리카 중부 내륙지방에 위치한 콩고민주공화국은 대한민국의 10배에 달하는 광활한 영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앙골라 등과 접경하고 있음.
- 비옥한 토지와 막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농업, 광업 등 1차 산업이 경제활동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나, 최근 들어 도·소매업 등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06년 카빌라 합법정부가 선출된 이래 국내 정치 정비 및 내전으로 파괴된 인프라 재건 추진 작업이 한창이며, 동부 국경지대에서의 지속적인 폭력사태, 막대한 외채부담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방국가,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원조를 적극 유치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e	2009 ^f
경제성장률	6.5	6.4	7.0	5.9	3.0
재정수지/GDP	-2.7	-8.0	-10.0	-7.5	-6.0
소비자물가상승률	21.3	13.1	16.9	17.3	33.0

자료: IMF, EIU

□ 2008년까지 연평균 6%의 경제성장, 그러나 2009년 성장세 둔화 전망

- 콩고민주공화국은 2003년 임시정부 수립 이래 사회적 안정세, 국제금융 기구 및 서방 선진국으로부터의 원조 지원, FDI 유입 확대 등에 힘입어 연평균 6%대의 견실한 경제성장을 지속해왔음.
- 2009년에는 최대 수출품인 다이아몬드의 국제가격 하락세와 수요 감소가 지속되고,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면서 광업부문의 성장에 커다란 타격이 예상되나, 동국 GDP의 약 45%를 차지하는 농업부문이 내전의 충격에서 벗어나 호조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3%대의 플러스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적자기조

- 2006년 카빌라 대통령의 당선 이래 교육, 보건 등 사회 인프라 분야에 투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재정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있으며, 관세수입의 감소, 접경지역에서의 잦은 무력충돌로 인한 군사비용 증가 등으로 동국의 재정수지는 만성적인 적자기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2007년 GDP의 10%까지 확대되었던 재정적자는 2008년 국제사회의 원조 확대에 의해 다소 축소된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음.

- 이 같은 추세는 2009년에도 이어져, 교육, 보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국내 인프라투자 확대와 2011년 선거를 앞두고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동국의 재정수지 적자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동국은 그동안 공무원의 임금삭감, 국채상환 연기 등 지출 축소 정책 추진을 통해 재정적자에 대응해왔으나, 2009년부터는 해외 원조에 대한 의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2009년 3월 IMF의 PRGF(빈곤감소 및 성장촉진 프로그램)와 HIPC(외채경감전략) 대상국으로서 616백만 달러를 지원받은 바 있으나, 지난 2007년 체결된 DR콩고와 중국수출입은행 간 90억 달러 규모의 차관계약이 IMF와 파리클럽 등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현재 추가적인 지원은 보류되어 있는 실정임.

□ 소비자물가 상승세

- 내전 이후 한 때 500%까지 치솟았던 동국의 소비자물가는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책으로 인해 2003년 4.4%까지 안정되기도 하였으나, 2005년 군비지출 증가로 또 다시 21.3%까지 상승한 이후 줄곧 10%대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지속하고 있음.
- 2009년에는 세계경기침체로 인한 국제유가와 국제 식료품 가격의 하락이 콩고 프랑(Congolese Franc)의 가치하락을 일정 부분 상쇄하기도 하였으나, 국제기구 원조에 제동이 걸린 동국 정부가 지속적인 재정적자에 화폐증발로 대응하고 있어, 소비자물가는 정부의 목표치인 31.2%를 소폭 상회하는 3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구조 · 정책

[구조적 취약성]

□ 1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

- 오랜 기간 1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유지해온 DR콩고는 GDP의

50% 이상을 광업, 농업 등 1차 산업으로 충당하는 등 후진국 형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국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부문이 GDP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음.

- 3차 산업의 비중은 2002년 29%에서 2006년 33%로 소폭이나마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그 가운데 도·소매업이 22.3%를 차지하고 있음.

□ 취약한 사회기반시설

- 1960년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이래 근 48년간, DR콩고의 교통 인프라는 악화일로를 걸어왔음. 광대한 영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 이래 새로운 도로가 건설되지 않아 약 2,500km의 도로만이 포장되어 있으며, 철도의 경우, 광물 수출을 위해 일부 제한된 지역(Katanga)에서만 운행이 가능한 실정임.
- 통신 분야 역시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유선 전화선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이동전화 및 인터넷 이용률 또한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한편, 동국의 수력발전 잠재력은 남부아프리카 전 지역의 전력수요를 충당할 만큼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경제 인프라 미비 및 개발 부족으로 인해 현재 전체 가용용량의 약 7%만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인적자원 부족

- 동국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도 세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내전으로 인해 기대 수명이 급감하면서('06년 기준 46세) 생산 가능 인구는 전체의 절반에 불과하게 되었음. 또한, 오랜 내전으로 인해 공교육 시스템이 붕괴되어 1998년 중학교 진학률이 약 12%에 불과하였으며, 동년 성인 남녀의 식자율도 각각 81%와 54%로 집계되는 등, 성별에 따른 교육수준의 격차가 심각한 실정임.
- 2009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인간개발지수 순위에서도 총 182개국 중 176위를 기록하는 등 인적자원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실정임.

[성장 잠재력]

□ 광대한 영토 및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DR콩고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광대한 영토를 지닌 국가로 물, 광물, 석유 등의 천연자원이 매우 풍부함. 경작이 가능한 토지의 3%와 목초지 7%를 제외한 나머지가 삼림으로 보존되어 있으며, 다른 열대우림보다는 벌목·상업화 속도가 더딘 편이나, 최근 들어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음.
- 주요 광물자원으로는 구리, 코발트, 아연, 다이아몬드, 콜탄, 금, 은 등이 있으며, 2004년까지는 우라늄도 생산되었음.
 - 특히, Orientale과 Kivu 남부 지역에는 막대한 양의 금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대부분의 다이아몬드가 Kasai 지역에서 채굴되고 있으며, 콜탄 및 주석은 Maniema 및 Kivu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음.

[정책성과]

□ 정책 운용의 선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법체계의 투명성 부진

- 동국은 2002년 내전 종결 후 카빌라 과도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였음. 투자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제적 감시 체제에 참여하고 국내법을 정비하였으며, 외환통제 철폐와 민영화 추구 등 시장 지향적인 경제정책을 시행해 왔음.
- 2006년 민주선거를 통해 재집권에 성공한 카빌라 정권 하에 동국은 재정, 화폐정책의 지침과 수단을 정비하여, 가격 및 콩고 프랑 안정화, 외환보유고 확대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원조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왔음.
- 그러나 2008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투명성지수 순위에서 총 180개국 중 171위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행정체계의 비효율성 및 부정부패가 심각한 실정이며, 공권력과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편임.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e	2009 ^f
경 상 수 지	-755	-653	-873	-1,160	-1,390
경 상 수 지 / G D P	-10.6	-7.7	-8.9	-11.2	-13.0
상 품 수 지	-402	-430	-460	-600	-700
수 출	2,071	2,350	2,515	2,500	2,300
수 입	2,473	2,780	2,975	3,100	3,000
외 환 보 유 액	131	155	181	77	..
총 외 채 잔 액	10,600	11,201	12,283	13,200	..
총 외 채 잔 액 / GDP	149.3	131.8	126.6	114.8	..
D . S . R .	5.7	6.9	7.1	7.0	..

자료: IMF, EIU

□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기조

- 경상이전수지를 제외한 나머지 경상수지의 구성항목은 만성적 적자기조를 지속하고 있음. 2009년에는 2006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약 14억 달러 상당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 2009년에는 광물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동과 코발트의 국제가격 급락에 의해 수출실적이 축소될 전망이며, 소비재 가격 하락 및 수요 감소에 따라 수입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상품수지는 약 7억 달러 상당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동년 3월 이후 국제원조금의 추가적인 유치실적 부진으로 경상이전수지 흑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경상수지 적자폭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외채상환능력]

□ 국제원조에 따른 외환보유액 증가세, 그러나 외채구조는 여전히 불안정

- DR콩고의 외환보유액은 2006년 155백만 달러에서 2008년 77백만 달러로 축소되는 등 감소추세를 보여 왔으나, 2009년 3월 IMF와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원조 유치에 힘입어 2009년 6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268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D.S.R.과 외환보유액의 꾸준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GDP를 초과하는 막대한 외채규모 및 추가적인 원조 여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안한 외채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 GDP : 85억 달러('06) → 97억 달러('07) → 115억 달러('08)

* 총 외채잔액/GDP : 131.8%('06) → 126.6%('07) → 114.8%('08)

* 외채상환비율 : 6.9%('06) → 7.1%('07) → 7.0%('08)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 및 사회안정

[정치안정]

□ 카빌라 대통령의 안정적 집권 지속, 인권상황은 악화

- 2002년 11월, 6년간의 내전 및 이웃국가들과의 전쟁이 종식되고 과도정부가 설립된 이후, 국제사회의 지원 하에 실시된 2006년 국민투표에서 카빌라를 수반으로 하는 합법정부가 탄생하였음.
- 2007년 밤바 전 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 카빌라 대통령 경호대 사이에 무력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2008년 밤바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전범으로 체포됨으로써 야당세력이 무력화되어 카빌라 대통령의 지지기반이 보다 확고해짐.

- 그러나 DR콩고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UN)의 특별 리포트에 따르면, 반대파 정치인, 언론인, 기업인, 사회운동가 등에 대한 암살과 고문이 성행하는 등 동국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임.

[사회 및 소요사태]

□ 2007년 카빌라 대통령 경호부대와 밤바 경호사병 간 충돌 발생

- 2007년 3월, 수도 킨샤사에서 카빌라 대통령의 경호부대와 밤바 전 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 무력충돌이 발생하면서 300명 이상이 사망하였음. 지난 2008년 브뤼셀에서 망명 중이던 밤바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전범으로 체포되었음.

□ 동부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

- 2006년말 콩고의 투치족 장군 로랑 은쿤다가 이끄는 반군이 북부 Kivu 지역을 무력으로 장악하면서 약 80만 명의 실항민이 발생하였음. DR콩고와 접경국인 르완다는 동년 나이로비 협정을 체결, 은쿤다 세력을 비롯한 Kivu 지역의 반군 무력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약속하였음.

- 2008년 1월 은쿤다 장군과 콩고 정부를 비롯한 분쟁 당사자들이 모여 평화회담을 개최하였으나, 동년 8월과 9월 또 다시 전쟁이 발발하여 약 25만 명의 실항민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전쟁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되었음.

- 2009년에도 DR콩고 동부에 근거지를 둔 LRA(우간다 반군 '신의 저항군') 및 FDLR(후투족르완다해방민주세력)등 주변국 반군의 공격이 심화되어,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실항민 규모가 증가일변도에 있음. 최근 와해된 부룬디 반군의 잔류세력이 FDLR에 합류함으로써 향후에도 동 지역의 불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유엔(UN) 추정치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생한 DR콩고의 실항민은 약 200만 명에 달함.

2. 국제관계

□ 석유 매장지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영토분쟁

- 콩고민주공화국은 2007년 카빌라 정부가 들어선 이래 석유를 비롯한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는 바, 해양석유 매장지 확보에 주력하는 과정에서 주변국과 갈등을 빚어왔음.
- 2007년 말부터 상당량의 석유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Lake Albert 지역에서 우간다와 몇 차례의 군사 충돌이 있었음.
- 또한, 최근에는 해양경계선과 해양석유 시추권을 둘러싸고 앙골라와 갈등을 빚고 있음. 급격한 재정수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석유 매장지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동국은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제중재 재판에 회부할 가능성이 높음.

□ 르완다와는 긴장 속 해빙 국면

- 2002년 프리토리아 의정서를 통해 DR콩고에 주둔해 있던 르완다 병력이 철수되었으나, FDLR(후투족르완다해방민주세력) 반군이 여전히 콩고 동부 지역에 주둔함으로써 양국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었음.
- 콩고 정부와 MONUC(콩고민주공화국을 위한 유엔과전단)은 2007년까지 FDRL반군을 몰아내겠다고 르완다에 약속해왔으나 현재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양국은 2009년 1월 DR콩고 내의 FDRL반군에 대항해 공동의 군사적 행동을 취할 것에 합의한 데 이어, 동년 8월 6일 외교관계 단절 13년 만에 최초로 정상회담을 개최해 경제, 안보 면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 서방 및 국제사회의 지원 지속

- DR콩고의 내부적 변혁 과정에서 서방국가들과의 양자 협력관계 및 유엔, IMF 등의 국제적 지원이 금전적, 외교적 차원에서 꾸준히 이어져왔음. 또한, 동부 지역에서 분쟁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2009년 8월 MONUC의 추가

파병이 결정되었음.

* 현재 MONUC규모는 17,000명으로 3,000명이 추가 파병될 예정

□ 중국과의 관계 강화

- 통신 산업, 광업 등을 중심으로 DR콩고와 중국 간 무역관계가 심화되어 왔음. 중국은 DR콩고 내 광물 채굴권을 취득하는 대신 자국 수출입은행을 통해 90억 달러 상당의 차관을 공여하는 등 동국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광산개발, 도로철도 등의 인프라 건설 뿐 아니라 군사장비 및 군사훈련도 지원하고 있으며 유엔안보리 회의에서도 DR콩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함.

IV. 국제신인도

1.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ECD : 7등급 (2008. 10) → 7등급 (2009. 10)
- ICRG : 137/140 (2008. 9) → 138/140 (2009. 9)
- II : 168/175 (2009. 3) → 169/178 (2009. 9)
- Euromoney : 169/186 (2008. 9) → 168/186 (2009. 3)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 Short-Term Insurance Pilot Program(STIPP) 경우 인수가능
- 영국 ECGD : 인수불가
- 독일 Hermes :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외채상환태도

□ 외채부담은 감소될 전망

- 2008년 11월, DR콩고는 IMF의 PRGF 참여를 승인받은 데 이어, 파리클럽과 체결한 협정을 통해 6억 4천만 달러 상당의 채무를 탕감 받고 1억 2천만

V. 종합의견

- DR콩고는 내전 종식 후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평균 6%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해 왔으나, 2008년 발발한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주요 수출품인 광물, 농산물 등의 국제가격이 급락하면서 2009년에는 경제성장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06년 민주선거를 통해 카빌라를 수반으로 하는 합법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동부 지역 내에서 지속되는 주변국 반군의 공격, 만연한 부정부패 및 열악한 인권상황 등으로 인해 동국의 사회적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대외적으로는 주변국과의 갈등이 완화되고 국제사회의 원조가 지속되어 비교적 안정적인 면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2010년에는 IMF 및 파리클럽의 원조가 재개되고, 부진했던 광업과 건설업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어 예전의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2006년 카빌라 대통령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FDI 또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조사역 김예리(☎02-3779-6686)

E-mail : yeliekim@koreaexim.go.kr